

# 나만의 마니또로 새롭게 태어난 '뽀글이'

인기 캐릭터 '뽀글이' TV 애니로 제작... 내년 하반기 MBC 방영 예정



플래시 애니메이션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캐릭터 시장을 강타한 '뽀글이'를 이제 TV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원작사인 엔캐릭엔터테인먼트는 뽀글이 캐릭터를 장수 캐릭터로 계속 성장시켜 나간다는 전략으로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기획과 제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 TV 방영을 목표로 현재 시나리오 작업이 한창이다. 9살짜리 소녀 뽀글이가 11살이 돼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사뭇 궁금해진다. 가제 '뽀글이-나만의 마니또' TV 시리즈로 새롭게 태어날 뽀글이를 미리 만나본다.

글 / 신선자 객원기자

뽀글이는 어느날 엄마 손에 이끌려 미장원에 간다. 엄마가 작은 키로 고민하는 어린 딸을 위해 엄청나게 큰 파마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덩으로 예쁜 염색까지 하게 된 뽀글이. 미장원을 나서던 중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는 이웃집 멋진 오빠 '찌니'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만다. 말을 붙여보고 싶지만 마음뿐... '언젠가 꼭 사랑 고백을 하리라'며 수줍은 미소만 짓는다.

동네에서 한 번쯤은 본 듯한 귀여운 소녀 뽀글이. 작은 키에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수줍은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친근감과 따뜻함이 마음 속 가득히 퍼져 나간다.

어릴 적 느낀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통해 여성들이 가진 동화적 감성을 이끌어

내는 뽀글이를 기억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캐릭터들이 득세하던 시절, 과감하게 '순수' 코드에 승부수를 띄워 대성공을 거뒀던 인기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현재 뽀글이 캐릭터는 35여개의 라이선스를 보유, 다양한 상품군을 형성해 100억대 규모의 캐릭터 시장을 형성하며 명실공히 OSMU 전략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 TV 애니로 새롭게 제작

그 인기 캐릭터 뽀글이가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원작사인 엔캐릭엔터테인먼트는 내년 하반기 TV 방영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뽀글이 애니메이션 기획과 제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00년 7월 원형 캐릭터가 탄생된 후 이미 2001년 프로모션용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이 귀여운 캐릭터가 예상 외의 인기를 누리면서 완구, 침구, 문구, 동화 등 다양한 머천다이징 상품으로 탈바꿈해 요즘도 가까운 완구점을 찾으면 뽀글이 인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친숙한 이미지로 국내 대표적인 인기 캐릭터로 선정된 바 있는 뽀글이가 이번에는 자신의 성장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정 코믹 시트콤 드라마 2D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변신해 11살의 사춘기 소녀가 되어 우리 곁에 돌아온다.

정교한 2D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로 새롭게 선보여질 뽀글이는 총 52편의 에피소드를 기획중이며 26편을 미리 제작해



방영 한 후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나머지 26편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초등학생을 메인 타겟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의 시놉시스는 완성된 상태며 현재 국내와 일본작가들이 한창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욱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확고한 캐릭터로서의 패키지를 완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원작사인 엔캐릭엔터테인먼트가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을 담당하고 메인 프로덕션은 G&G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하며 약 15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제작사인 엔캐릭엔터테인먼트가 차기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뽀글이를 정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미 여러편의 플래시와 라이선스 상품으로 인지도를 확실히 높인 뽀글이야말로 장수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캐릭터 상품 구매층의 7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여성 전용 캐릭터로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 마음을 동요시키는 캐릭터

우리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뽀글이 캐릭터의 기본 컨셉은 어릴적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기반으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여성 모두가 공감하는 지난날의 동화적인 감성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 주요 대상층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를 타겟하고 있으나 성인 여성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캐릭터로 평가된다. 어른이 되어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순수한 사랑의 추억을 뽀글이를 통해 다시금 느

끼고, 한번쯤은 웃음으로 추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엔캐릭엔터테인먼트 이양우 사장은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캐릭터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TV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수십년간 수십편, 수백편이 제작되고 새롭게 편성되어 소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며 “뽀글이를 더욱 다양한 미디어로 뽀어나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장수 캐릭터로 만드는데 TV 애니메이션은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강조한다.

더욱이 이 작품은 캐릭터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인기 캐릭터여서 이미 MBC문화 방송과 방영권 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내년 TV 애니메이션 업계의 기대작이 되고 있다.

### 뽀글이의 성장 애니메이션

TV 애니로 만나게 되는 뽀글이의 기본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뽀글이는 3년동안 시골 할머니 니택에 맡겨진다.

어려서부터 또래 아이들 보다 키가 작고, 마음도 여렸던 뽀글이는 시골 생활을 통해 씩씩하고 명량한 아이로 자랐지만, 가슴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여린 마음을 간직한 순수한 소녀이다. 이제 뽀글이의 나이 11살, 새로 시작된 그녀의 서울 생활은 만만치 않다. 오랜 시골생활로 친구가 없었던 뽀글이는 작은키로 발돋움해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외톨이다.

그러던 어느날 사춘기 소녀 뽀글이의 마음에 멋진동네 오빠 씨니가 들어오게 된다. 씨니를 처음 만난날부터 뽀글이는 자신이 매일 겪는 모든사건과 감정들을 작은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에 쓰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인 일기장에게 '마니또'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시놉시스에서 시작한 순정 시트콤 2D 애니메이션인 뽀글이에서는 마니또라는 일기장에 쓴 현실세계와 상상속의 세계가 다양한 에피소드로 그려질 예정이다. 왕따, 인터넷 문화, 친구와 학업관계, 조속해진 아이들의 성적 체험 등 요즘 초등학생이 느끼는 내용과 어린아이가 본 어른들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또 뽀글이가 좋아하는 씨니라는 남학생을 통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잔잔히 흘러가며 주변이야기와 함께 뽀글이가 커나가는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타깃층의 감성 장악

즉 이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신체의 변화, 정신적 변화 등 타깃층의 주요 관심사를 에피소드화해 전달하며 타깃층의 정서를 대변하는 뽀글이라는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이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를 동질화시키는 사춘기 소녀들의 시선에서 착안한 기획으로 뽀글이 성장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다. 약간은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의미도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양우 사장은 “대부분 아이들은 캐릭터를 동질화시키는 겨냥이 있다”며 “뽀글이를 통해 아이들이 부모, 선생님, 친구 등 다양한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타깃층의 감성을 장악해 타깃층을 통한 종합 브랜드로 완성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뽀글이가 TV 애니로 재탄생돼 제작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엔캐릭엔터테인먼트는 뽀글이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이유는 인기캐릭터 뽀글이의 애니메이션, 출판물 제작을 통해 타깃층을 넓히고 충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확고한 캐릭터 스토리를 구축해 뛰어난 아트웍에 기반한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완성해 나간다는 이유 외에도 기구축된 사업영역의 점검 및 타분야로의 윈도우 확장을 통해 뽀글이의 브랜드가 강화된 신규사업 부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 바비 아성에 도전한다

이러한 제작 기획 의도는 적중해 뽀글이는 이미 내년 하반기 MBC문화방송을 통해 공중파 방영이 예정돼 있고 현재 국내 케이블 TV와 미국, 일본측에서 애니메이

션 구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엔캐릭엔터테인먼트는 특히 미국측에서 “전세계 아이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캐릭터”라며 애니메이션 제작이 완성되면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엔캐릭엔터테인먼트의 이양우 사장은 “기존 애니메이션은 완전 창작물이었는데 비해 뽀글이는 캐릭터라는 것을 원작으로 이미 이미지와 컨셉이 완성돼 있으며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콘텐츠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캐릭터-영상물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의 극대화를 통해 국내시장에 집중된 사업분야와 배급방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해외시장 진출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친구인 일기장 마니또에서 우리의 귀여운 파마머리 소녀 뽀글이를 빨리 만나보고 싶다.

성공적인 OSMU 전략으로 TV 애니로 제작될 뽀글이가 제작사 엔캐릭엔터테인먼트의 목표처럼 한국형 바비 캐릭터로 성공하길 기대해본다. 

#### 《작품개요》

- 제목 : 뽀글이-나만의 마니또 (Working Title)
- 작품형식 : HDTV용 11분 26편(15분물) or 22분 13편(30분물)
- 제작기법 : 2D 애니메이션
- 장르 : 순정 시트콤
- 컨셉 : 11살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 뽀글이의 성장 코믹 순정 드라마
- 메인타깃 : Low Teen Girl(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여학생)
- 완성시점 : 2005년 하반기
- TV 방영 : 2005년 하반기 MBC문화방송 (방영권 계약 체결 완료)
- 기획제작 : 엔캐릭엔터테인먼트 & 지앤지 엔터테인먼트